

6월의 독립운동가

동포학살의 참극을 알리려다 일제에 암살당한

추송 장 덕 준 선생



(1892. 6. 25.~1920)

장덕준 선생은 1892년 황해도 재령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나 명신중학교에 진학해 1911년 졸업하고 모교의 교사로 임명돼 2년간 교편을 잡았다.

1914년 평양일일신문사에 입사해 조선신문부 주간으로 근무했다. 1915년 일본 유학길에 올라 세이소쿠(正則) 예비학교에 다니면서 재동경조선인유

학생 학우회에 참여했다.

1919년 김성수와 함께 조선의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한 학생을 외국에 유학시키려는 목적으로 「육영회」 설립을 추진했다.

1920년 김성수, 장두현 등과 함께 민간신문인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해 논설반원과 통신부장, 조사부장을 겸했다. 선생은 창간 다음날인 4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조선소요에 대한 일본여론을 비평함’(필명은 ‘추송’)이라는 논설을 통해 조선자치론과 일시동인론(一視同仁論) 등 3·1운동을 왜곡한 일본의 여론을 비판했다.

1920년 10월 만주 훈춘에서 일본군이 청산리에서 독립군에게 패한 보복으로 조선인 5000여 명을 무차별 학살한 ‘경신참변’이 발생했고, 선생은 이를 취재하기 위해 현지로 달려갔다. 간도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빨간 피덩이만 가지고 나의 동포를 해하는 자가 누구이냐고 쫓아와보니 우리가 상상하던 비와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동아일보, 1925. 8. 29)고 소식을 보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인 두세 명에 불리어 나간 후로 소식이 끊어져 한국 언론사상 첫 순직 기자가 됐다.

독립신문은 ‘장덕준씨 조난논평’에서 선생이 일본군에 암살됐다는 기사를 보도(1921. 10. 28)했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알리기 세계태권도대회 개최

교민과 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 현지인 1000여 명 참가

독일지부(회장 김용길)는 5월 28일 독일 보트로프시 스포츠홀에서 ‘대한민국 알리기 보트로프 시장배 세계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현지 교민을 비롯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 등 현지 유럽인을 포함 약 1000여 명의 태권도인이 참여해 유럽 내 태권도 전파와 함께 태권도를 홍보하는데 큰 교두보 역할을 했다.



제1차 고문단 간담회 개최

연맹은 7일 서울 이태원동 한 중식당에서 김경재 총재를 비롯해 정광영 부총재(사무총장 직대)와 박창달, 장경순, 권해욱, 장영철, 여상환, 이종근, 류준상 고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재 총재는 연맹 주요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고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박경원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신규고문 위촉 건의가 있었다.

전국청년협의회 월례회의 실시

전국시·도청년협의회(회장 김신우)는 16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본부간부와 17개 시·도지부 청년협의회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청년협의회장 합동연수와 DMZ국토대장정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통일선봉대 어떤 길을 가나?〉 발간

연맹 자유통일연구원(원장 노희상)은 15일 <통일선봉대 어떤 길을 가나?〉를 발행, 17개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이 책에서는 연맹이 중점사업으로 내세우는 통일선봉대의 실질적 역할을 ▲통일의 민족사적 가치 ▲통일운동 준비와 3대 블루오션 ▲우리 통일방안에 대한 신념을 갖자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개방향 ▲통일선봉대의 역할 ▲통일꾼의 삶 등 소주제로 나누어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6월 지방조직 주요 활동계획(17~30일)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서울	6·25전쟁음식재현 시식회(서초구)	22일	서초구청	1000명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시지부)	23일	서문여고	510명
	생활안전지킴이 캠페인(노원구)	29일	하계역 앞	100명
부산	호국보훈 위안잔치(연제구)	23일	연제문화원 강당	200명
	자유수호결의대회(시지부)	25일	자유회관	300명
	유엔전몰용사 추모제(시지부)	25일	유엔기념공원	30명
대구	소년병 위령제(시지부)	21일	낙동강승전기념관	200명
	6·25전쟁음식 시식회(서구)	23일	서구청 앞	2000명
인천	6·25전쟁음식 시식회(시지부)	22일	동인천역 북광장	2000명
광주	어린이 독도 방문(남구)	28일	독도	44명
대전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유성구)	24일	경북 영덕 일대	30명
울산	장애아동시설 위문행사(울주군)	23일	범서읍 혜진원	23명
세종	운영위원회 회의(시지부)	20일	자유회관	12명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경기	자유수호 웅변대회 예선(수원시)	24일	경기자유회관	100명
	통일맘 효잔치(군포시)	27일	경기자유회관	100명
강원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속초시)	28일	청대초교	100명
충북	6·25전쟁음식 시식회(강릉시)	25일	통일공원	400명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음성군)	22일	금왕초교	25명
	6·25전쟁 최초 승전지 체험행사(음성군)	23일	감우재전승기념관	1500명
충남	북한이탈주민 초청 문화체험(아산시)	20일	서울	35명
	하늘빛 봉사단 운영(아산시)	24일	온양6동	10명
전북	6·25전적지 순례(순창군)	24일	회문산 일원	100명
전남	독거노인 돕기(곡성군)	21일	곡성레저문화센터	25명
경북	6·25전쟁음식 시식회(도지부)	22일	다부동전적기념관	5000명
경남	전쟁음식시식회 및 전투장비 체험전(도지부)	23일	경남자유회관	2000명
제주	안보사진 전시회(도지부)	26일	제주통일관	500명